대학도서관 인식분석을 통한 문제점규명과 대응방안*

- 한·중 학부생을 중심으로 -

Problem Exploration and Countermeasure Through Perception Analysis College Library: Focused on the Korean-Chinese Undergraduates

정 진 식(Jin-Sik Chung)**

초 록

본 연구는 한·중 양국 대학교 학부생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수준 측정을 통해서 도서관의 성장과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는 현안 문제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질문지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도서관의 사회 및 문화적 기능에 대한 학부생들의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인식제고를 위한 도서관 문화행사를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국 학생들에 비해 한국 학생들의 학구열이 매우 낮고 아예 도서관을 찾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과학습의 강도를 높이거나 도서관의 활용도를 높이는 유인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전문사서의 계속교육과 이용자에 대한 집단 및 그룹별 이용자 교육의 강화, 도서관 이용을 통한 수업연계방안 프로젝트 등의 대응방안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pending issues as an obstacle factor in the library growth and progress through measurement of Korean and Chinese College undergraduates' perception on the library, and suggest its countermeasure to that the study result showed that their perception to the library's social and cultural function was low, so the library's cultural events need to be consolidated to enhance perception, and the Korean student's study zeal was lower than Chinese, and amny students did not go to the library, but an incentive is needed to escalate the strength of course study or the library availability. Aloso a countermeasure should be established such as a class link project through continuing specialized librarians' training strengthened, users' group education for the satisfaction enhancement and validity of the information service users.

키워드: 대학도서관, 인식수준, 장애요인, 이용자교육, 정보자원
University Library, Perception Level, Obstacle Factor, User Education, Information Resources

---

* 이 논문은 2007년도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jschung@hansung.ac.kr)

논문접수일자 : 2007년 11월 20일 논문심사일자 : 2007년 11월 24일 게재확정일자 : 2007년 12월 4일

www.kci.go.kr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최근 우리사회에는 얼마 전부터 대학개혁과 관련된 담론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담론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대학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학도 변화해야 되고,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매우 빠르고 심오한 사회 변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인간 활동이 교통운송 수단에서 커뮤니케이션 시대로, 그리고 이어서 컴퓨터 네트워크에 기초한 그로벌경제로 변화해 가고 있다. 물질이나 에너지와 같은 물리적인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지식 자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정보화시대로 즉, 물질적 단위인 원자에서 정보단위인 비트로, 국가의 지정학에 기초한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와 지역적 전통에 기초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대학과 더불어 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대변혁은 전 세계가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는 현실에서 기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개혁을 주도하고 개혁은 생산성을 가속화시키며, 생산성의 결과는 무수한 정보를 산출하고 있다. 대학에서 생산되는 지식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있다. 이처럼 끝없이 생성되는 정보들 가운데 옥석을 가려 관리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검색의 핵심이 되는 정확한 접근점을 찾기란 더더욱 힘든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학은 대학의 기본적인 가치와 임무를 고수하면서 동시에 구성원들의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와 서비스 역할을 조화시켜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대학문화의 일부로서 변화의 한 가운데 서있는 대학도서관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센터 노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학도서관의 1차적 이용자 집단인 학부생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이들의 학습과 조사에 따른 욕구충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 수행을 위해 이루어 졌다. 첫째는, 개방과 참여를 화두로 하는 웹2.0시대의 환경 속에서 한·중 양국의 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도서관에 대한 인식수준을 측정해서 도서관의 성장과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는 현안 문제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는, 대학사회 구성원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정보생성 메카인 도서관과 전문사서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고양시키므로 가일층 인정받고 신뢰받는 '도서관 2.0 문화'를 조성하자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과 방법으로는 도서관의 지원활동 내지는 도서관에 대한 학부생들의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실증분석을 하였다. 중국은 동북3성(吉林省, 黑龍江省, 遼寧省)의 하나인 길림성 장춘에 위치한 세무대학과 동북사범대학, 길림대학 등 3개 대학의 학부생 200명을, 한국에서는 한성대학, 서울대학,

www.kci.go.kr

장로회신학대학 등 3개 대학의 학부생 270명을 조사대상으로 질문지기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기간과 질문지 배포 및 회수는 다음과 같다.

① 중국은 연구자가 장춘세무대학 외국어학부 한국어학과에 교환교수로 근무하는 기간 중 2007년 4월10일부터 2007년 6월10일까지 2개월 동안에 걸쳐 장춘세무대학은 강의시간을 이용하였으며, 동북사범대학과 길림대학은 우편과 이메일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총 200매를 배부하여 165매(82.5%)를 회수 하였으나, 대답이 불분명하거나 체크가 잘못된 11매를 제외한 총 154매(77%)를 분석하였다. 질문지는 대학별이 아닌 계열별로 분석하였다(대학별로 배포매수가 일정치 않기 때문임). 회수된 질문지를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열 113매, 이공/공상계열 36매 총 149매이다

② 한국은 2007년 10월1일부터 2007년 11월 10일까지 1개월 10일 동안 한성대학을 비롯해서 서울대, 장로회신학대 3개 대학의 학부생 270명에게 강의시간을 이용하여 질문지를 배포하고 작성토록 하였다. 질문지는 총 270매를 배부하였으나 회수된 질문지는 252매(93%)로 이 가운데 대답이 불분명한 8매를 제외하고 총 244매(90%)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를 계열별로 보면 인문/사회계열 130매, 이공계열 65매, 예술계열 55매 등 총 250매이다. 중국과 한국을 합한 총 399매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질문지 작성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적용했으며, 조사결과 분석은 SPSS/PC+를 사용하였다.

1.3 조사내용

질문지의 조사내용은 응답자의 속성분석을 비롯해서 크게 4가지 영역 즉, (1)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12개 문항(공공도서관 7개 문항, 대학도서관 5개 문항), (2) 도서관 이용실태 8개 문항, (3) 사서에 대한 인식 3개 문항, (4) 도서관 시설과 환경 및 정보자원 3개 문항을 합한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의 속성에서는 소속, 전공분야, 학년, 성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영역의 문항 1-12까지는 도서관 인식과 관련된 질문으로 도서관에 대한 학부생들의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개방되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도서관의 사회적 필요성과 기여도 및 대학도서관의 중요성에 관해 조사하였다. 두 번째 영역의 문항 13-20까지는 도서관 이용실태와 관련된 학부생들의 도서관 이용수준을 묻는 질문으로 하루 중 이용시간, 이용목적, 이용빈도 및 이용하는 자료, 이용자 교육, 질의요청, 정보서비스를 받아 본 경함과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 영역의 문항21-23에서는 도서관 사서와 관련된 질문으로 도서관 사서의 전문성, 사서의 교육자적 인성, 사서의 인사이동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었으며, 네 번째 영역의 문항24-26까지는 디지털화된 첨단 멀티미디어 웹2.0 상에서 도서관의 시설, 환경, 정보자원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www.kci.go.kr

2. 대학이념변화와 도서관 역할변화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이상과 인재를 양성하는 양면적 가치를 지닌 조직으로서, 지식을 생성하고 전달하고자 함을 본질적인 목표로 한다. 대학은 네 개의 다리로 지탱되는 탁자에 비유할 수 있는데 그 네 개의 다리는 교육의 기초가 되는 강의와 연구, 도서관의 지식보존 및 커뮤니케이션(출판을 통한)으로 대학은 이 네 가지 교육의 기본요소를 통해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라는 대학의 기본적 기능 및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학을 통해 생성되는 학문적 지식은 대학의 근간을 이루는 네 개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인 도서관의 지식보존과 접목된다. 흘러간 옛날의 지식에 접근하는 것은 역동적인 새로운 지식 창출에 기여한다. 대학에서 새로운 지식은 반복적으로 옛 지식과 직면하면서 생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옛 지식과 새로운 지식이 변형되어 왔다. 이에 예전 지식의 보존과 새로운 시기의 창출이라는 두 가지 개념은 결국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Pelikan 1992).

대학문화를 이끌어가는 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핵심기관이며, 지식의 전당으로 학생들의 인격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캠퍼스의 연구센터이고 대학의 학술적 우수성을 가늠하는 잣대이며 자존심의 원천(O'Neil 1982)이 되는 대학도서관의 성장(컨텐츠측면 강조)은 그 대학의 발전을 의미하며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지표로 간주 된다. 따라서 대학문화를 형성해 가는 도서관은 문화의 흐름에 신속하게 반응해야 하며 새로운 방향에 발맞추기 위하여 장서개발과 정보서비스 등 전반적인 방향을 하나하나씩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한다. 도서관은 대학의 교육적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 중의 하나로서 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보장 받아야 한다. Lynch(1998)는 도서관 조직에 과학기술이 끼친 영향을 고려하면, 도서관은 좀 더 효율적인 조직방법을 계속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학은 지성의 전당이고 연구의 산실이므로 학문적 공간으로서의 모태를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대학도서관의 장서구성 및 정보서비스 활동도 정태적 공간에서 학술정보를 총괄하는 동태적 공간으로 변해야 한다.

Katz와 Kahn(1987)은 도서관 업무에 시스템적인 접근방식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주었으며 조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한다는 오픈 시스템이론을 주장하였다. 조직은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포, 조직, 시스템이 적응하는 생물 유기체와 같다. 다시 말해 조직은 특수한 형태의 오픈 시스템들과 함께 다른 구성물들을 공유한다. 이것은 환경에서 에너지를 가져와 처리하거나 가져온 에너지를 다른 시스템 내에서 다른 형태로 변형하는 작업, 그리고 에너지를 다른 환경으로 내보내는 작업, 환경 내에서 에너지를 새롭게 창출하는 작업들을 수반 한다.

Townley(1995)는 많은 사서들이 변화의 이유를 받아들이고 다른 조직구조를 지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은 기존의 관료주의 조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더 나아가 기존의 익숙한 구조적 모델을 고수하는 한 가지 이유로 대부분의 사서들이 도서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을 설계하는데 미숙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관료주의적인 모델에서 벗어나 재 조직화를 시도하려면 무엇보다도 도서관의 핵심사명과 그 존재 이유를

www.kci.go.kr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료주의의 대안(가능성 있는 보완책, 혹은 관료주의를 추가할 만 한 것)가운데 컬리지얼(collegial)구조가 있다.

이 구조의 형태는 과거에 사서들의 학술적인 지위와 관련이 있었다. 실제로 2001년에 ACRL (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y)이 제시한 "Standards for Faculty Status for College University Librarians"에 보면 대학도서관은 교수에게 적용되는 방식, 구조와 유사한 학술적인 운영방식을 채택해야 한다(ACRL 2001)라고 나와 있다.

도서관의 비전은 새로운 과학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도서관이 아카이브보다 유기체에 가까워진다고 강조했다. 이는 도서관이 자치적인 부분들로 구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상호의존적인, 살아있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수준 높은 인식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변화된 조직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기초로 하여 움직이는데, 이 상호작용은 "양쪽의 구성원과 상호 지향하는, 구성원간의 신뢰에 기반을 둔 관계의 호혜주의"(Hummel 1994)를 인식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과도한 중앙통제가 아니라 조직을 평등하게 만들고 업무를 고립에서 통합된 방식으로 수행하게 하고, 전체적인 조직의 업무를 강조하고 협력이 도서관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학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신중한 전략을 추구해야 하며, 정보서비스는 교수와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초점이 맞춰 져야할 것이다(Lee 1993).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모기관인 대학의 변화에 따라 원격 사이트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며, 비용은 얼마나 소요 될 것인가? 하는 해결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의 비전은 효과적인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조직의 모든 사명뿐만 아니라 그 조직구성원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Townley(1995)가 언급한 바와 같이 변화는 행동을 필요로 한다. 변화란 정적이거나 일차원적인 현상이 아니다. 새로운 조직구조가 옳은 것만은 아니지만, 변화를 위한 새로운 사유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어느 순간에는 점진적인 조정만으로 더 이상 도서관이 변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과학기술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과 개혁을 거듭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은 일반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희귀서, 고문서, 사본, 향토자료, 회색문헌, 대학사료 등을 수집하여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에게도 이용시키고 후대에 전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고 있다(윤희윤 2002). 도서관에는 대학의 역사가 숨 쉬고 있으며, 대학최고의 자산이며, 전문사서는 연구자들의 혈관을 통하여 정보와 지식을 주입하고 신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정책은 이용자에게 지적, 문화적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봉사를 수행하는 데에 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현재 대학도서관의 환경은 교육제도의 변화와 디지털도서관의 출현으로 새로운 운영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전명숙 2002). 최근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대학도서관들이 고등교육 전반에 걸쳐 학술분야 프로그

www.kci.go.kr

램의 초점과 방법의 변화, 교수와 학생의 인구적 특성의 변화 및 등록의 증대, 정보기술의 영향, 대학과 대학의 교수, 연구 및 서비스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변화 등으로 인해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대학커뮤니티의 요구와 기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곽동철, 김기태, 윤정옥 2006).

3. 데이터분석 및 논의

3.1 응답자 속성분석

질문에 응답한 전체 학생을 국별, 계열별, 단과대학별, 학년별, 성별로 살펴보면 그림 1-5와 같다. 먼저 국가별로는 응답한 학생 399명 가운데는 한국 250명(62.7%), 중국 149명(37.3%)으로 한국학생이 101명 더 많았으며, 계열별로는 인문계열 243명(60.9%), 이공계열 101명(25.3%), 예술계열 55명(13.8%)으로 인문계열 학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단과대학별로는 사회과학대학 128명(32.1%), 인문대학 100명(25.1%),이공대학 101명(25.3%), 예술대학 55명(13.8%), 신학대학 15명(3.8%)으로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단 중국 응답자 가운데는 신학대학과 예술대학은 포함되지 않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 49명(12.3%), 2학년 130명(32.6%), 3학년 140명(35.1%), 4학년 77명(19.3%)으로 3 학년에서 제일 많았고, 성별로는 남학생 165명(41.4%), 여학생 234명(58.6%)으로 여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는 국별, 계열별로만 분석 했다. 단과대학별, 성별, 학년별에 대해서는 전체만 다루었을 뿐, 문항별 상세분석에서는 접근하지 못했다.

국가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중국	149	26.4	37.3	37.3
	한국	250	44.3	62.7	100.0
	Total	399	70.7	100.0	
Missing	System	165	29.3		
Total		564	100.0		

(그림 1) 국가별 분석

계열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인문대	243	43.1	60.9	60.9
	예술대	55	9.8	13.8	74.7
	공대	101	17.9	25.3	100.0
	Total	399	70.7	100.0	
Missing	System	165	29.3		
Total		564	100.0		

(그림 2) 계열별 분석

www.kci.go.kr

단과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사회과학대학	128	22.7	32.1	32.1
	인문대학	100	17.7	25.1	57.1
	공과대학	101	17.9	25.3	82.5
	신학대학	15	2.7	3.8	86.2
	예술대학	55	9.8	13.8	100.0
	Total	399	70.7	100.0	
Missing	System	165	29.3		
Total		564	100.0		

(그림 3) 단과대학별 분석

학년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대학원재	3	.5	.8	.8
	대학1년	49	8.7	12.3	13.0
	대학2년	130	23.0	32.6	45.6
	대학3년	140	24.8	35.1	80.7
	대학4년	77	13.7	19.3	100.0
	Total	399	70.7	100.0	
Missing	System	165	29.3		
Total		564	100.0		

(그림 4) 학년별 분석

성별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남성	165	29.3	41.4	41.4
	여성	234	41.5	58.6	100.0
	Total	399	70.7	100.0	
Missing	System	165	29.3		
Total		564	100.0		

(그림 5) 성별 분석

3.2 도서관에 대한 인식(Q.1-Q.12)

3.2.1 공공 및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식

분석결과 한국과 중국 학생들 상에 대학 도서관에 대한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그림 6에서 보는바와 같이 분석결과 한국과 중국 학생들 사이에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공공도서관 측면에서는 중국 대학생들

www.kci.go.kr

Independent Samples Test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Lower	Upper
일반도서관인식	Equal variances assumed	.534	.465	1.948	394	.052	.76784	.39425	-.00726	1.54293
	Equal variances not assumed			1.978	318.273	.049	.76784	.38814	.00419	1.53148

(그림 6)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비교

Independent Samples Test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Lower	Upper
대학도서관인식	Equal variances assumed	1.382	.241	-.089	397	.929	-.02808	.31481	-.64698	.59081
	Equal variances not assumed			-.092	341.435	.927	-.02808	.30524	-.62847	.57231

(그림 7)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식비교

(mean=17.14) 이 한국 학생들(mean=16.37)에 비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식분석결과 한국과 중국 학생들 상에 대학 도서관에 대한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각각의 문항별에 대한 세부 분석은 표 1-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Q.1 인류문화 역사의 보고

도서관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생성되는 인류문화 역사의 보고라는 질문은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국은 그렇다 53.0%, 매우 그렇다 36.2%, 잘 모르겠다 8.1%, 아니다 2.7% 순이며, 한국은 그렇다 46.0%, 잘 모르겠다 26.4%, 매우 그렇다 24.8%순이며, 2.8% 정도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Q.2 인간의 영혼관련

도서관은 지식정보자원을 관리하며 인간의 지적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음을 확인하는 질문이다.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매우 그렇다 52.3%에 한국은 그렇다 52.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계열별로 보면 중국과 한국 모두 인문계열의 인식수준이 이공계열이나 예체능계열에 비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Q.3 국가사회 발전 평가척도

도서관이라는 유기체가 국가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느냐 라는 질문은 표 3에서 보는바와 같다. 중국은 그렇다 51.0%에 상당히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매우 그렇다와 잘 모르겠다가 각각 23.5%, 20.1%, 아니라고 하는 부정적인 대

www.kci.go.kr

(표 1) 도서관은 인류문화 역사의 보고

		국가					
		중국			한국		
		계열			계열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Question1	매우-그렇다	46	0	8	38	10	14
	그렇다	55	0	24	56	21	38
	잘모르겠다	8	0	4	32	23	11
	아니다	4	0	0	4	0	1
	절대아니다	0	0	0	0	1	1

(표 2) 도서관은 인간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곳

		국가					
		중국			한국		
		계열			계열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Question2	매우그렇다	59	0	19	37	13	15
	그렇다	50	0	12	75	23	34
	잘모르겠다	3	0	3	18	16	14
	아니다	0	0	2	0	3	1
	절대아니다	1	0	0	0	0	1

(표 3) 국가사회발전 평가척도

		국가					
		중국			한국		
		계열			계열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Question3	매우그렇다	31	0	4	33	15	20
	그렇다	59	0	17	67	23	26
	잘모르겠다	18	0	12	25	15	15
	아니다	3	0	2	3	2	2
	절대아니다	2	0	1	2	0	2

답도 5.4%에 이르고 있다. 한국 역시 그렇다 46.4%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매우 그렇다와 잘 모르겠다 가 각각 27.2%, 22.0%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계열별로 보면 중국에서는 이공계열이 인문계열에 비해서 무관심 내지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인문계열, 이공계열 예체능계열 순으로 인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www.kci.go.kr

Q.4 도서관 시설 지역사회지역주민에게 활용

도서관 시설과 자원을 지역사회주민에게 개방하고 대학이 지역과 더불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개념에 아직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아주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아니다와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각각 66.8%, 68.4%로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공유하기에는 아직도 요원함을 증명해 주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아니다 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문계열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개방에 대한 많은 담론이 있었고 이미 개방을 시작한 대학도 있어 중국에 비해 상당히 우호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Q.5 소장 자료 지역사회 완전개방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서관 소장 자료의 완전개방은 한국과 중국 모두 아니다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국은 아니다 39.6%, 절대아니다 25.5%, 그렇다와 잘 모르겠다가 동일하게 13.4%씩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서도 아니다 30.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 27.2%, 그렇다 24.8%순이다. 계열별에서는 한국과 중국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4) 지역사회정보센터로서 도서관 시설 지역주민에게 활용

		국가					
		중국			한국		
		계열			계열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Question4	매우그렇다	1	0	1	15	5	14
	그렇다	26	0	4	33	14	24
	잘모르겠다	19	0	4	42	18	19
	아니다	48	0	20	34	13	6
	절대아니다	17	0	6	6	5	2

(표 5) 소장 자료 지역사회주민에게 완전개방

		국가					
		중국			한국		
		계열			계열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Question5	매우그렇다	7	0	2	9	2	7
	그렇다	17	0	3	29	12	21
	잘모르겠다	16	0	4	34	17	17
	아니다	46	0	13	46	14	17
	절대아니다	25	0	13	12	10	3

www.kci.go.kr

Q.6 지역사회 주민 도서관 활동 참여 및 공유

지역사회 주민들을 도서관 활동에 참여시켜 공유토록 해야 한다는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이고 개방에 대한 피해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무관심 또는 이해부족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잘 모르겠다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와 아니다가 각각 32.9%, 9.5%로 별 차이가 없다. 한국은 그렇다 35.6%, 잘 모르겠다 33.2%, 아니다 16.8%순으로 나타나 중국보다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니다 라는 부정적인 응답자가 전체의 약 30%(중국)와 23%(한국)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식정보사회의 공유와 참여에 대한 인식부재에 기인되고 있다고 본다. 계열별로 볼 때 중국은 인문계열에 비해 이공계열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계열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Q.7 도서관 건립의 계속성

표 7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서관 건립의 계속성에 대해서는 중국과 한국이 각각 89.9%, 85.6%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90% 정도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미래지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중국사회에 개방과 개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계열별에서는 인문계열, 이공계열, 예체능계열 순으로 예체능계열의 인식이 다소 낮게 분석되었다.

(표 6) 지역사회 주민 도서관활동 참여 및 공유

		국가					
		중국			한국		
		계열			계열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Question6	매우그렇다	6	0	2	14	3	5
	그렇다	33	0	8	50	17	22
	잘모르겠다	39	0	14	42	18	23
	아니다	30	0	10	19	11	12
	절대아니다	3	0	1	5	6	3

(표 7) 도서관 건립의 계속성에 대한 인식

		국가					
		중국			한국		
		계열			계열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Question7	매우그렇다	62	0	20	82	17	33
	그렇다	42	0	10	37	20	25
	잘모르겠다	6	0	3	8	17	5
	아니다	3	0	3	3	1	1
	절대아니다	0	0	0	0	0	1

www.kci.go.kr

Q.8 도서관성장과 대학발전 관계

대학도서관의 성장은 그 대학의 발전과 비례하는가? 라는 관계성 질문에서는 표 8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 모두가 높게 평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가 각각 47.7%와 42.9%로 약 90.6%인 반면, 잘 모르겠다는 7.4%, 아니다는 2.0%에 불과했으며, 한국의 경우는 그렇다 44.4%, 매우 그렇다 37.6%로 응답자의 약 82% 정도가 대학도서관의 성장은 곧 대학발전이라는 밀접한 관계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중국이 한국에 비해 인식수준의 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열별에서는 차이가 없다.

Q.9 대학의 핵심기관

표 9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서관이 대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중국에서는 73.8%가 한국에서는 69.2%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으나, 잘 모르겠다 또는 아니다 라는 부정적인 응답자가 중국이 26.8%, 한국이 30.8%에 이르고 있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도서관 활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계열별에서는 인문계열이 이공계와 예체능계열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Q.10 지식의 전당으로 인격도야에 미치는 영향

표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학도서관은 지식의 전당으로 학생들의 학문과 인격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중국에서는

(표 8) 도서관성장과 대학발전과의 관계

		국가					
		중국			한국		
		계열			계열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Question8	매우그렇다	53	0	18	57	15	22
	그렇다	51	0	13	53	24	34
	잘모르겠다	7	0	4	17	15	7
	아니다	1	0	1	3	1	1
	절대아니다	1	0	0	0	0	1

(표 9) 도서관은 대학의 핵심기관

		국가					
		중국			한국		
		계열			계열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Question9	매우그렇다	39	0	12	41	9	16
	그렇다	48	0	11	59	23	25
	잘모르겠다	17	0	7	22	17	18
	아니다	8	0	5	7	5	5
	절대아니다	1	0	1	1	1	1

www.kci.go.kr

매우 그렇다 43.6%, 그렇다 32.3%로 인식정도가 높게 났으며, 잘 모르겠다와 아니다 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10.7%와 6.0%로 나타났다.

한국은 그렇다 51.2%, 매우 그렇다 29.6%, 잘 모르겠다 16.8%, 아니다 2.4% 순이다. 도서관이 학문과 인격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중국과 한국 학생들의 인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열별에서는 예체능계열의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Q.11 질적수준 평가척도

대학도서관을 보면 그 모체인 대학의 질적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응답은 표 11에서 보는바와 같다.

중국은 그렇다 39.6%, 매우 그렇다 24.8%, 아니다 22.1%, 잘 모르겠다 13.4%순이며, 한국도 그렇다 42.0%, 매우 그렇다 31.2%, 잘 모르겠다 23.2%, 아니다 3.2%, 절대아니다 1.2%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이 73.0%로 중국의 64.4%로 보다 높으며, 중국에서는 22.1%의 학생이 아니라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계열별에서는 차이가 없다.

Q.12 예산 최대지원의 필요성

대학도서관은 대학 내의 여러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야한다. 그래야만 구성원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질적으로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2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국과 한국 모두 그렇다 에 각각 46.3%와 37.2%로 긍정적인 반

(표 10) 지식의 전당으로 인격도야에 미치는 영향

		국가					
		중국			한국		
		계열			계열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Question10	매우그렇다	50	0	15	40	13	21
	그렇다	48	0	11	68	27	33
	잘모르겠다	10	0	6	21	13	8
	아니다	3	0	4	1	1	2
	절대아니다	2	0	0	0	1	1

(표 11) 대학의 질적수준 평가척도

		국가					
		중국			한국		
		계열			계열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Question11	매우그렇다	31	0	6	45	12	21
	그렇다	48	0	11	51	22	32
	잘모르겠다	13	0	7	30	18	10
	아니다	21	0	12	4	3	1
	절대아니다	0	0	0	0	0	1

www.kci.go.kr

(표 12) 대학기관 중 예산 최대지원 필요

		국가					
		중국			한국		
		계열			계열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Question12	매우그렇다	20	0	7	31	10	11
	그렇다	57	0	12	52	16	25
	잘모르겠다	18	0	8	35	25	20
	아니다	15	0	9	12	3	7
	절대아니다	3	0	0	0	1	2

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아니라고 응답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도 중국은 18.1%, 한국은 10.0%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예체능계열에서는 잘 모르겠다(45.5%)에 매우 인색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2.2 논의

첫 번째 카테고리인 Q.1에서 Q.12까지는 공공 및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이다. 이를 Q.1-Q.2는 문화적 측면에서, Q3-Q.7까지는 사회적 측면에서, Q.8-Q.12까지는 교육적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적 측면인 Q.1-Q.2 및 사회적 측면인 Q.3-Q.6까지의 문항에서는 중국과 한국학생 모두가 긍정적으로 비교적 높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 학생들의 경우 중국 대학생들과는 대조적으로 각 문항 모두에서 무관심 또는 무지를 나타내는 잘 모르겠다에 응답한 학생이 Q.1-26.4%, Q.2-19.2%, Q.3-22.0%, Q.4-53.0%, Q.5-27.2%, Q.6-33.2%를 차지하고 있어 도서관문화 또는 홍보활동을 통한 문화행사를 강화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중국 학생들의 경우는 사회적 측면인 Q.4와 Q.5, Q.6에서 아니라고 하는 부정적인 응답이 Q.4-61.0%, Q.5-65.1%에서 매우 강한 부정을 나타냈으며, Q.6에서도 29.%가 아니라고 응답했다. 중국 학생들에게는 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이라는 용어가 아직까지는 낯설게 느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은 ① 학생들 전원이 대학에 마련된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유일한 학습내지는 생활공간이며, ② 사회주의 체제 통념상 개방이란 용어는 생소한 단어에 불과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의 원하는 바는 현재는 어려우나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문항 4-6에 대한 인터넷 조사에서는 50명중 42명(84%)이 반드시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Q.7의 도서관 건립의 계속성에 대해서는 양국 학생들 모두 진취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본 Q.12에서만 한국 학부생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www.kci.go.kr

3.3 도서관 이용실태(Q.13-Q.20)

Q.13 1일 평균 도서관 이용시간

중국과 한국 학부생들의 도서관 이용시간 통계결과는 그림 8-9에서 보는바와 같다.

분석결과 중국과 한국 학생들 간의 도서관 이용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중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에 비해 도서관 이용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상세한 비교는 표 13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국과 한국 학생들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학생들은 1일 평균 이용시간이 2시간정도 32.9%, 3시간정도 21.5%, 1시간정도 16.8%, 3시간이상 12.8%, 30분 이내 11.4% 순으로, 하루 평균 2시간정도 이용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한국의 학생들은 1일 평균 이용시간이 30분 이내 32.4%, 1시간정도 22.8%, 가지 않는다 17.6%, 2시간정도 15.6%, 3시간정도 6.4%, 3시간 이상 5.2% 순으로, 대다수 학생들의 도서관 1일 평균이용시간이 30분 이내에서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도서관에 투자하는 이용시간이 짧은데다 약 18% 정도의 학생들이 아예 도서관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67.479a	5	.000
Likelihood Ratio	70.026	5	.000
Linear-by-Linear Associatior	59.449	1	.000
N of Valid Cases	399		

a. 0 cells (.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11.95.

(그림 8) 1일 평균 이용시간

Question13 * 국가 Crosstabulation

Count

		국가		
		중국	한국	Total
Question13	가지않는다	7	44	51
	30분이내	17	81	98
	1시간정도	25	57	82
	2시간정도	49	39	88
	3시간정도	32	16	48
	3시간이상	19	13	32
Total		149	250	399

(그림 9) 1일 평균 이용시간(2)

www.kci.go.kr

(표 13) 1일 평균 이용시간(3)

		국가					
		중국			한국		
		계열			계열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Question13	가지않는다	4	0	3	18	17	9
	30분이내	12	0	5	35	22	24
	1시간정도	17	0	8	29	10	18
	2시간정도	35	0	14	29	3	7
	3시간정도	28	0	4	11	2	3
	3시간이상	17	0	2	8	1	4

열이나 이공계열에 비해 예체능계열에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Q.14 도서관 이용목적

도서관의 이용목적은 그림 10-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 학부생들 간에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 중국과 한국 학생들 간의 도서관 이용목적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56.899[a]	4	.000
Likelihood Ratio	59.017	4	.000
Linear-by-Linear Associatior	35.351	1	.000
N of Valid Cases	397		

a. 1 cells (10.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4.07.

(그림 10) 도서관 이용목적

q14 * 국가 Crosstabulation

Count

		국가		
		중국	한국	Total
q14	단순히공부	71	47	118
	수업과제작성	11	47	58
	정보입수와지식축적	45	59	104
	달리갈곳이없어서	2	9	11
	책을빌리기위해	18	88	106
Total		147	250	397

(그림 11) 도서관 이용목적(2)

www.kci.go.kr

표 14에 보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공부하기 위한 목적이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입수와 지식축적 30.2%, 책을 빌리기 위해서 12.1%, 수업과제 작성 7.4% 순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에서는 단순히 책을 비리기 위한 목적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보입수와 지식축적 23.6%, 공부와 수업과제작성 목적이 19.6%와 18.0% 순으로 중국의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의 학생들은 책을 빌리기 위해 도서관을 찾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계열별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Q.15 자료 대출경험

책을 빌려본 경험은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반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1권 이상 책을 빌려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열별로는 중국과 한국이 동일하게 인문계열, 이공계열, 예체능계열 순으로 예체능계열 학생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편으로 분석되고 있다.

* Q.16은 통계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분석에서는 제외 시켰음.

Q.17 이용자 교육

표 16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국은 도서관 이용자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 33.6%, 없다 66.4%로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자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있다 14.8%, 없다 85.2%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전혀 이용자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학생들이 중국에 비해 도서관 이용에 대한 절대 빈곤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도서관에 축적되는 정보의 양은 물론 인터넷상에서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방대해짐에 따라 이용자들의 정보접근 방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계열의 학생들

(표 14) 도서관 이용목적

		국가					
		중국			한국		
		계열			계열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Question14	단순히 공부하기 위해	54	0	17	17	14	18
	수업과제를 작성하기 위해	6	0	5	21	8	16
	정보입수와 지식축적을 위해	39	0	6	36	10	13
	달리 갈 곳이 없어서	1	0	1	4	5	0
	책을 빌리기 위해	12	0	6	52	18	18

(표 15) 자료 대출경험

		국가					
		중국			한국		
		계열			계열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Question15	있다	109	0	32	126	45	61
	없다	4	0	3	4	10	4

www.kci.go.kr

(표 16) 이용자 교육 경험정도

		국가					
		중국			한국		
		계열			계열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Question17	있다	40	0	9	26	4	7
	없다	73	0	26	104	51	58

에게 도서관 정보자원 내지는 정보시스템 활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향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Q.18 질의요청 경험

도서관 사서에게 질의 요청한 경험 여부는 표 17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국의 학생들은 있다 33.6%, 없다 65.8%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있다 34.0%, 없다 66.0%로 양국의 학생들에게서 거의 동일한 반응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양국의 학생들 모두가 사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용자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계열별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Q.19 사서에게 정보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

표 18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정보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다 53.0%, 없다 46.3%로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있다 27.2%, 없다 72.8%로 상당수의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 사서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비교해 볼 때 한국 학생들 거의 대다수(72.8%)가 정보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표 17) 질의요청 경험

		국가					
		중국			한국		
		계열			계열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Question18	있다	41	0	8	55	12	18
	없다	71	0	27	75	43	47

(표 18) 정보서비스 수혜 경험유무

		국가					
		중국			한국		
		계열			계열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Question19	있다	64	0	15	36	13	19
	없다	49	0	20	94	42	46

www.kci.go.kr

Independent Samples Test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Lower	Upper
Question20	Equal variances assumed	16.471	.000	-.893	243	.373	-.095	.107	-.305	.115
	Equal variances not assumed			-.833	159.140	.406	-.095	.114	-.321	.130

(그림 12) 정보서비스 만족도

나타나 대학도서관의 역할이 아주 미미하거나 또는 정보서비스정책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계열별에서는 차이가 없다.

Q.20 사서의 정보서비스 만족정도

학생들의 질문의 유형은 이미 많은 연구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아주 단순한 즉답형 내지는 지향형에 그치고 있으나, 데이터 분석결과는 그림 12에서와 같이 정보서비스를 받아본 한국과 중국 학생들 간에 사서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373$).

본 문항에 대한 분석은 전체 응답자 399명 가운데 245명(중국 98명, 한국 147명)만이 응답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표 19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만족 32.9%, 잘 모르겠다 14.1%, 불만족 11.4%로 나타났으며, 한국에서는 만족 30.0%, 잘 모르겠다 25.2%, 불만족 2.8%로 중국과 한국 학생들 간에 만족정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였으나, 잘 모르겠다는 소극적인 응답은 한국에서 그리고 불만족 정도는 중국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계열별에서는 차이가 없다.

3.3.1 논의

Q.13에서 대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시간을 보면 중국 학생들은 약 54.0% 정도가 하루 2시간 정도(32.9%) 또는 3시간 정도(21.5%)를 도서관에서 학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면, 한국 학생들은 30분 이내(32.4%) 또는 1시간 정도(22.8%)로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아주 짧은 즉, 학구열이 너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9) 사서의 정보서비스 만족정도

		국가					
		중국			한국		
		계열			계열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Question20	매우만족	14	0	2	5	0	2
	만족	33	0	11	34	18	16
	잘모르겠다	19	0	2	34	16	13
	불만족	10	0	6	5	2	2
	매우불만족	0	0	1	0	0	0

www.kci.go.kr

뿐만 아니라 아예 도서관에 가지 않는다는 학생이 약 18.0%에 이른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중증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학습의 강도를 높이거나 도서관의 활용을 높이는 유인정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라 본다. 또 Q.14의 이용목적에서도 중국은 약 50.0%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찾는데 비해 한국의 학생들은 책을 빌리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어 도서관을 마치 도서대여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착각을 느끼게 하고 있다. 정보입수와 지식축적을 위한 인식을 갖게 하는 방향전환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Q.17의 이용자교육이 중국에 비해 한국은 전무 상태이며, Q.19에서 질문회피 등 사서에 대한 불신과 도서관 사서의 존재의의와 역할, 기능에 대한 무지, Q.20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즉, 집단 및 그룹 또는 개별 이용자 교육의 강화, 도서관 이용을 위한 수업연계방안 프로젝트 등의 대응방안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3.4 도서관 전문사서에 대한 인식

그림 13-14의 분석결과와 같이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 간에 도서관 사서에 대한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002$).

Q.21 도서관 직원의 사서자격증 취득

도서관직원의 자격증 소지에 대한 인식에서는 중국과 한국학생 약 70% 정도가 도서관 직원의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표 20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국이 72.0% 인데 비해 한국은 65.2%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보다는 중국의 대학생들이 도서관 직원의 사서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계열별에서는 차이가 없다.

Independent Samples Test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Lower	Upper
도서관사서인식	Equal variances assumed	.005	.941	3.135	395	.002	.53448	.17051	.19925	.86970
	Equal variances not assumed			3.148	310.269	.002	.53448	.16977	.20043	.86852

(그림 13) 도서관 사서에 대한 인식

Group Statistics

	국가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도서관사서인식	중국	147	8.1905	1.62318	.13388
	한국	250	7.6560	1.65062	.10439

(그림 14) 도서관 사서에 대한 인식(2)

www.kci.go.kr

(표 20) 도서관직원의 사서자격증 취득

		국가					
		중국			한국		
		계열			계열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Question21	매우그렇다	41	0	10	43	8	15
	그렇다	44	0	12	51	25	21
	잘모르겠다	22	0	9	25	20	22
	아니다	6	0	4	8	1	5
	절대아니다	0	0	0	3	1	2

Q.22 교육자로서의 인정

표 21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국은 매우 그렇다 20.1%, 그렇다 41.6%, 잘 모르겠다 24.8%, 아니다 13.2%인 반면, 한국에서는 매우 그렇다 14.8%, 그렇다 44.4%, 잘 모르겠다 32.8%, 아니다 8.0%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때 중국은 62.0%, 한국은 59.2% 정도가 도서관 사서는 안내 및 조력자로서 교육자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에 높은 평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에서는 차이가 없다.

Q.23 전문사서 인사이동의 타당성

도서관 사서에 대한 인식은 한국에 비해 중국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전문사서를 행정관련 타부서로 이동시킨다는 인사정책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표 22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국은 매우 다탕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단 한사람도 없으며, 타당성을 인정하는 응답자는 8.1%에 불과 했다. 반대로 타당치 못하다는 72.4%로 사서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타당하다 21.6%, 잘 모르겠다 46.8%, 타당치 못하다 31.6%로 중국학생들에 비해 도서관 사서의 전문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대학의 인사정책이 도서관 사서의 전문성을 무시한 인사이동을 감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인되고 있을 것이라 본다. 계열별에서는 차이가 없다.

(표 21) 교육자로 인정

		국가					
		중국			한국		
		계열			계열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Question22	매우그렇다	17	0	13	24	7	6
	그렇다	55	0	7	61	21	29
	잘모르겠다	27	0	10	35	23	24
	아니다	14	0	6	9	4	6
	절대아니다	0	0	0	1	0	0

www.kci.go.kr

(표 22) 전문사서 인사이동의 타당성

		국가					
		중국			한국		
		계열			계열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인문계	예체능	이공계
Question23	매우타당하다	0	0	0	3	2	2
	타당하다	11	0	1	20	14	13
	잘모르겠다	22	0	6	57	25	35
	타당치못하다	60	0	18	43	10	13
	절대타당치못하다	20	0	10	7	4	2

3.4.1 논의

전반적으로 볼 때 도서관 사서에 대한 인식은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규모나 예산 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중국의 대학도서관들이 장서수가 많고 전문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정규 직원이 많은 데다 인사이동이 없는 안정된 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Q.22와 Q.23을 연계해서 볼 때 한국의 학생들은 59.2%가 사서를 교육자로 인정한다(Q.22)고 하면서도 사서의 타부서 인사이동에 대해 32% 정도가 인정을 하겠다(Q.23)는 것은 한국 대학의 그릇된 인사행정 현실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라 본다.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관행은 도서관 장기발전전략에 엄청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3.5 도서관 시설과 환경 및 정보자원

데이터 분석결과는 그림 15-16에서와 같이 한국과 중국 학생들 간에 도서관시설과 환경 및 정보자원에 대한 인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중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 보다 도서관 시설과 정보자원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24 시설에 대한 만족도

도서관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학생들 모두가 만족해하고 있다. 표 23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국은 매우 만족 15.4%, 만족 59.1%로 전체의 74.5%가 만족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은 매우 만족 16.8%, 만족 61.2%로 전체의 78.0%가 만족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dependent Samples Test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Lower	Upper
도서관시설인식	Equal variances assumed	4.069	.044	1.948	397	.052	.41801	.21461	-.00390	.83993
	Equal variances not assumed			1.902	288.352	.058	.41801	.21980	-.01461	.85063

(그림 15) 시설과 환경 및 정보자원

www.kci.go.kr

Group Statistics

	국가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도서관시설인식	중국	149	7.3020	2.19553	.17986
	한국	250	6.8840	1.99763	.12634

(그림 16) 시설과 환경 및 정보자원(2)

(표 23) 시설에 대한 만족도

		국가					
		중국			한국		
		계열			계열		
		인문계	예체능계	이공계	인문계	예체능계	이공계
		Count	Count	Count	Count	Count	Count
Question24	매우만족	17	0	6	24	9	9
	만족	69	0	19	83	28	42
	잘모르겠다	11	0	7	19	16	11
	불만	15	0	4	4	1	2
	매우불만	1	0	0	0	1	1

이에 비해 불만족은 3.2%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대학도서관들이 최첨단장비를 도입 디지털도서관을 건립한데서 영향을 입은 것이라 판단된다. 계열별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Q.25 환경에 대한 만족도

Q.24에서 와 같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4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국은 79.2%, 한국은 70.0%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은 중국과 한국이 각각 12.1%와 6.8%로 나타났다. 계열별에서는 차이가 없다.

Q.26 정보자원에 대한 만족도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은 만족 36.2%, 불만족 34.9%, 잘 모르겠다 18.8%, 매우만족

(표 24) 환경에 대한 만족도

		국가					
		중국			한국		
		계열			계열		
		인문계	예체능계	이공계	인문계	예체능계	이공계
		Count	Count	Count	Count	Count	Count
Question25	매우만족	22	0	6	23	9	8
	만족	71	0	19	77	24	34
	잘모르겠다	10	0	3	21	20	17
	불만	10	0	8	8	2	4
	매우불만	0	0	0	1	0	2

www.kci.go.kr

(표 25) 정보자원에 대한 만족도

		국가					
		중국			한국		
		계열			계열		
		인문계	예체능계	이공계	인문계	예체능계	이공계
		Count	Count	Count	Count	Count	Count
Question26	매우만족	8	0	2	12	4	4
	만족	46	0	8	57	17	35
	잘모르겠다	19	0	9	40	28	18
	불만	38	0	14	19	5	5
	매우불만	2	0	3	2	1	3

6.7%, 매우불만족 3.4% 순으로 만족과 불만족이 대등한 분포를 나타냈다. 이에 배해 한국은 만족 43.6%, 잘 모르겠다 34.4%, 불만족 11.6%, 매우 만족 8.0%, 매우 불만족 2.4%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계열별에서는 차이가 없다.

중국의 학생들이 Q.24와 Q.25에 비해 Q.26의 정보자원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높은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정보자원의 노후로 인한 불만이며, 또 다른 하나는 DVD와 같은 비도서자료의 이용시 본교학생들에게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용료를 부과시키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3.5.1 논의

Q.24(시설)와 Q.25(환경), Q.26(정보자원)을 종합해 보면, 중국의 학생들은 시설(74.5%)과 환경(79.2%)에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만족해하고 있으나, 정보자원에서는 만족이 42.9%에 그치고 있는 반면 불만족이 38.3%로 나타나 시설과 환경에 비해 매우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 이는 단행본의 최신성 결여와 e-book, e-jour. 등을 비롯한 전자정보자원의 부족, 해외 DB의 부족 등 대학도서관의 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정책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한국은 시설과 환경 및 정보자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상당수의 학생들이 만족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 결론 및 제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4개의 카테고리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 인식전반에서는 ① 도서관의 문화적 및 사회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를 위해 시청각프로그램(교수저서전시회, 음악연주회, 영화감상, 문학과 영화), 독서프로그램(작가탐구대회, 저자와의 만남), 학술정보프로그램(책속의 보물찾기, book hunting) 등의 도서관문화 또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문화행사를 강화시킴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촉구시켜 나아가가야 할 것이다. ② 도서관의 지역사회개방은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중국 학생들에게는 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이라는 용어가 아직은 낯설게만 느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www.kci.go.kr

이유는 학생들 전원이 대학에 마련된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유일한 학습공간 내지는 생활공간이며, 사회주의 통념상 개방이라는 용어는 생소한 단어에 불과하기 때문이리라 본다. ③ 도서관 건립의 계속성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모두가 90% 정도의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④ 도서관 예산지원 확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도서관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질적으로 수준 높은 정보제공을 가능케 하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며, 이용자 집단 특히 교수들을 위한 보다 새로운 정보서비스전략(FISP, CDRS 등)을 실행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둘째, 도서관이용실태 분석결과 ① 대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시간에서 중국학생들은 약 54% 정도가 하루 2~3시간 정도 도서관에서 학습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 학생들은 30분 이내 또는 1시간 정도로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 학구열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약 18%정도가 전혀 도서관을 찾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관은 공부방이 아닌 조사연구를 위한 학습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교과학습의 강도를 높이거나 도서관의 활용을 높이는 유인정책(환경개선, 정기이용교육을 위한 교양과목 개설, 독자적인 뉴스레터 발간 등)이 마련되어야 활 것이다. ② 이용목적에서도 중국과 한국의 양상이 뚜렷하게 달랐다. 중국은 약 50%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찾는데 비해 한국의 학생들은 책을 빌리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어 도서관을 마치 도서대여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착각을 느끼게 하고 있다. 정보입수와 지식축적을 위한 인식을 갖게 하는 방향전환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③ 이용자교육의 부재이다. ④ 도서관 사서에 대한 불신과 사서의 존재의의와 기능 및 역할, 사서의 정보제공에 대해 만족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편으로 정보서비스 만족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집단 또는 그룹별 이용자 교육의 강화와 도서관 이용을 위한 교과수업과의 연계방안 프로젝트(수업 과제해결은 사서와의 Q&A를 통해 해결토록 하는 방법을 강구함으로서 사서의 신뢰를 구축함) 등의 대응방안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문사서에 대한 인식결과 ① 사서에 대한 인식은 중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도서관 규모나 예산, 전문성에 대한 인정, 예산 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중국의 대학도서관들이 장서수가 많고 전문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정규직원이 많은데다 전문사서의 인사이동이 없는 안정된 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 판단된다. ② 한국 학생들은 사서를 교육자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Q.22) 사서의 타부서 인사이동에 대해 32%정도가 인정을 하고 있다. 이는 한국 대학의 그릇된 인사행정 현실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다. 사서의 전문성을 무시한 인사이동은 업무능력 및 사기저하는 물론 도서관의 지속적인 장기발전 프로젝트 수행에 발목을 잡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정이 요망된다.

넷째, 중국 학생들은 도서관 정보자원에 대해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단행본의 최신성 결여와 전자정보자원의 부족, 비도서자료(DVD) 이용료 징수 등 대학도서관의 정보자원 관리 및 활용정책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한국대학생들

www.kci.go.kr

은 도서관 시설과 환경 및 정보자원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 고 문 헌

곽동철, 김기태, 윤정옥. 2003. 대학도서관의 환경변화와 문제점의 분석: 미국, 영국, 호주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1): 3-28.

윤희윤. 2002. 『대학도서관경영론』. 서울: 태일사.

전명숙. 2002. 대학도서관 정책의 반성과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3): 431-444.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001. *Standards for Faculty Status for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ans.* Chicago: ALA.

Dougherty, Richard M.,and Fred J. Heinritz. 1982. *Scientific management of Library Operations.* 2nd ed. Metuchen, N.J.:Scarecrow Press.

Hummel, Ralph P. 1994. *The Bureaucratic Experience,* 4th ed. New York: St. Martin's Press.

Katz, Daniel, and Robert L. Kahn. 1987. "Organization and the System Concept." *In Classics of Organization Theory,* 2nd ed. Edited by Jay M. Shafritz and J. Steven Ott, pp.250-62. Chicago: Dorsey Press.

Lee, Susan. 1993. Organization Change in the Harvard College Library: A Continued Struggle ofr Redefinition and Renewal.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19(Sept): 225-30.

Lynch, Beverly P. 1988. "Changes in Library Organization." In *Leadership for Research Libraries: A Festschrift for Robert M. Hayes.* Edited by Anne Woodsworth and Barbara von Wahlde, pp 67-78. Metuchen, N.J.: Scarecrow Press.

Pelikan, Jaroslav. 1992. *The Idea of the University: A Reexamination.*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Robert M. O'Neil. 1982. "The University Administrators's View of the University Library." *In Priorities for Academic Libraries,* edited by T.J. Galvin and B.P. Lynch, p.5.

Townley, Charles T. 1995. "Designing Effective Library Organization." In *Academic Libraries: Their Rationale and Role in American Higher Education.* Edited by Gerald B. McCabe and Ruth J. Person.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www.kci.go.kr